

# S-Oil, 유가 하락에 영업이익 급감

2/4분기 422억원으로 94% 줄어 ... 매출액도 4조777억원으로 38% 감소

S-Oil의 2/4분기 영업이익이 421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.0% 감소했다.

매출액은 4조776억6000만원으로 37.6% 줄고 당기순이익도 719억8000만원으로 80.5% 감소했다.

2009년 상반기 매출액은 7조8520억5000만원으로 37.6% 감소했고, 영업이익은 4407억9000만원으로 56.8%, 순이익은 2387억7000만원으로 50.6% 각각 감소했다.

S-Oil 관계자는 “상반기에 제품 판매량은 소폭 증가했으나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”며 “특히 정제마진 하락으로 2/4분기 정유부문 영업손실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주요 공정 정기보수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”고 밝혔다.

그러나 “하반기에는 정유부문에서 아시아 지역 수요는 3/4분기에 바닥을 치고 4/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 “석유화학 및 윤활부문은 벤젠(Benzene) 및 윤활기유 수요 증가가 예상돼 시장전망이 밝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03>